



2022 아르코미술관 융복합 예술 페스티벌

2022 Arko Art & Tech Festival

땅속 그물 이야기 *The Fable of Net in Earth*



1 오늘 밤 파티에 가는데 너도 올래? (잠시 침묵) 글썸... (민망) 맞아. 좀 바보 같지. 나도 그런 데 별로 안 좋아해... 그래도 오늘 거기서 볼래? 이런 대화는 주로 중요한 사건 직전에 등장한다. 둘은 파티에서 만나고, 거기서 둘만의 침묵을 나눈다.

넷플릭스 드라마 「퍼스트 킬」 1화에 나는 완벽히 이입했다.

파티에서 그 애를 만날 생각에 주인공은 들뜬다. 선생님이 등장했고 수업이 시작되었다.

주인공은 상념에 빠진다. “난 항상 예민했지만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 매일 세상은 더 날카로워지고 시끄러워져. 오늘 버거운 하루라고 생각했는데 널 우연히 만났어. 넌 누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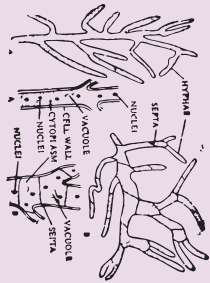


1 *There's a party tonight... (Pause) I'm not big on parties. (Embarrassed) Me either, they're dumb... but I promised I'd go so I'll be there. If you decide to go too then maybe I'll see you?*

This is the kind of conversation that leads up to a crucial event. The two meet up at the party and share an intimate silence.

Watching the first episode of the Netflix series *First Kill*, I could identify with the main character. She's excited at the thought of running into the other girl later that night. The teacher enters and class begins. The lead falls into a funk. "I've always been sensitive. But it's getting worse. Every day the world is a little sharper, a little louder. But today, just when I think it's too much, I bumped into you. Who are you, Calliope Burns? Where have you been all this time?" Our character's crush is late to class. "I can't shake the fear that as soon as I blink, you'll disappear. You're not my first crush. Not even my second. But this one feels different. More intense, like I know

칼리오페 번스? 왜 이제야 나타났어?” 우리는  
지각생을 사랑한다. “눈을 깜빡이는 순간 네가  
사라질까 봐 두려워. 넌 내 첫사랑이 아니야.  
두 번째도 아니지. 하지만 이번엔 느낌이 달라.  
더 강렬해 우린 꼭 이뤄질 것 같아. 그게  
언제인지 모를 뿐.”<sup>1</sup>



이것은 여자를 사랑하는 여자의 드라마다.  
뱀파이어가 어찌고 몬스터 사냥하는 집안이  
어찌고 하며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기다리는 것은 그가 그를  
좋아하고, 다가가려고 궁리하고, 타이밍을 재고, 그게 잘 안되는 장면이다.

둘은 몸을 흔들거리며 대화하고, 꼭 붙어 키스하고, 옷을 움켜쥔다.  
몸을 붙이기 위해 손과 손이 서로를 밀고, 지형지물을 활용해 누가 누굴  
들어 올린다. 무아지경 체리가 든 병이 깨지고, 한 명이 다른 한 명의  
목을 문다. 이야기는 그 아이에게로 넘어간다.

2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면 부엌의 엄마가 떠오른다. 쪼그리고 앉아  
호두를 깨 먹으며 수군대기도 별안간 웃기도 하던 엄마와 친구들.

we're going to happen. I just don't know when.”<sup>1</sup>

This is a drama about a girl who loves a girl. Sure, it could  
also be described as a show about vampires and monster  
hunters, but the scenes I wait for are the ones where the lead is  
crushing on the other girl, scheming to get close, looking for  
an opening, and fail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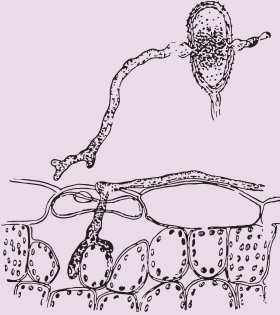
The two girls sway as they talk, they cling to each other  
and kiss, they clasp each other's clothes. Hands push hands  
as they try to get closer, one lifts the other using whatever  
furniture or features are in hand. They are completely entranced.  
A jar of glacé cherries breaks; one bites the neck of the other.  
The story shifts to the other character.

2 I follow the thread of my memory back and see an image  
of my mum in the kitchen, crouched on the floor with her  
friends. They are cracking walnuts, chatting, bursting into  
laughter. I remember this moment of peace as being almost

그 순간을 신성에 가까운 평화로 기억한다. 그들이 배부르다고 하면서도 굴이나 초콜릿을 먹는 행위가 끝나지 않기를 바라기도 했다. 그러다 벨 소리가 울리고 한 사람이 내 정신 좀 봐, 하며 일어난다. 헤어질 시간이다. “자기야, 나 간다.” 하고 한 명이 일어서면 누구 하나가 화분과 서리태콩은 내일 가져가겠냐고 묻는다.

“사실 이들 말고도 더 많은 소녀들이 얽히고설켜 있었다.”<sup>2</sup>

엄마 친구 딸들은 가끔 우리 집에서 하룻밤 보내고 갔다. 우리는 잠들기 직전까지 장난을 걸다가 서로 몸으로 몸을 깔아뭉개는 몸싸움을 했는데, 한 명이 한 명의 몸 위에 올라타 힘껏 짓누르고, 짓누르는 시간이 오래되면 숨소리를 의식했다.



“그는 같은 성별의 아이들이 한 침대에서 잘 때 ‘의도치 않게’ 서로를 ‘성적으로 자극하는’ 일이 잦았다고 썼다. 그들은 만지고 키스하면서 서로를 성적으로 자극했다. 그는 “성적 자극”을 “점액이 분비되고,

divine. I used to wish they'd go on eating the tangerines and chocolate forever, I didn't care how full they were. Then a phone rings and someone remembers she must get going and hurriedly gathers her things. It is time to leave. "I'll be off, honey," she says. Others ask her if she'll come by to pick up the potted plant and the beans tomorr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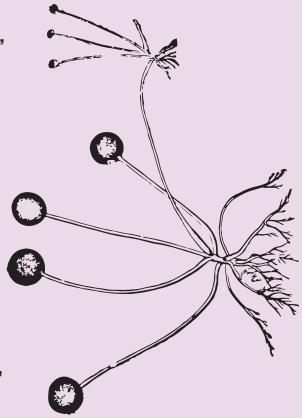
*And more girls were involved.*<sup>2</sup>

The daughters of Mum's friends would sleep over at ours from time to time. We'd play and wrestle each other to the ground, laying on top of one another for fun until bedtime. We'd be aware of the sound of our own breathing when we press each other down for a beat longer than seems necessary.

*He wrote that when children of the same sex slept in the same bed they often "unintentionally" generated "sexual irritation" in each other [...] He defined "sexual irritation" as "pudential turgescence with secretion of mucus and involuntary twitching of the neighboring muscles."*<sup>3</sup>

인접한 근육들이 불수의적으로  
 싹죽거리며 음부가 부풀어 오르는 것”  
 으로 정의했다.”<sup>3</sup>

3 일없이 마음이 들뜨는 날이면  
 건물 뒤편으로 나가 개미를  
 구경하거나 텅 빈 매점  
 근처를 돌아 나오고는 했다.  
 몰래 교실을 빠져나오는 나를  
 보고 내 머릿속에 있는 아이가 따라  
 나와주기를 바라기도 했던 것 같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혼  
 자서 그 일이 지겨워질 때까지 하고, 다시 교실에 들어가 앉았다. 종이 울  
 리고 모두들 부산스럽게 신발장  
 앞에서 자기 신발을 챙기고 있을 때 내가 신경 쓰는 아이는 인사말 끝에  
 묻곤 했다. 아까 거기서 뭐 했어?  
 이것이 내가 기억하는 고등학교의 장면이다.



3 On days when I felt restless, I'd go round behind the school building and look at ants or walk to the empty snack shop and back. Maybe I was hoping the girl on my mind would spot me and sneak out of the classroom too, but she never did. I'd wander about until I get tired of it and eventually return to my desk. When the bell rings, in the bustle of everyone crowding around the shoe lockers to retrieve their shoes, the girl I was into would speak to me and ask what I'd been doing outside earlier.

A memory from high school.

Hand-washing station, tennis, barley tea, evening, schoolyard, apricot blossoms, pat bingsu, school gate, school trips, fans, mid-terms, dust, smell of sweat, errands, desk, multimedia, grasshopper, note—all words that recall any number of memories from those days.

In 1908, when Margaret Mead was seven, she met a young woman on a train to Philadelphia and was “strangely attracted”

수돗가, 테니스, 보리차, 저녁, 운동장, 살구꽃, 팔빙수, 교문 앞, 수련회, 선풍기, 중간고사, 먼지, 땀 냄새, 심부름, 책상, 멀티미디어, 방아깨비나 쪽지 같은 단어에서도 얼마든지 고등학교의 일을 기억해낼 수 있다.

“마거릿 미드는 일곱 살이던 1908년, 필라델피아행 기차에서 젊은 여자를 한 명 만났다. 그녀는 이 여성에게 ‘묘하게 끌리는’ 감정을 느꼈다. 4년 후 그 여자가 마거릿의 삶으로 다시 들어왔다.”<sup>4</sup>

4 나는 일상을 비일상으로 만들어주거나 나를 완전히 일상에 안착시킬 대상을 찾는다.<sup>5</sup> 그건 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한 명은 시를 쓴다. 그에게 “요즘 어떤 기분으로 사니?”, “무슨 기대로 사니?” 물으면 친구는 말한다. “기분이나 기대 없고... 꼭 맞는 사람이랑 사는 상상해. 내가 그 사람 발견하거나 발견되는 상상. 그런 미래로 버텨.”

이 사람과 나는 저작권이나 쓰는 문제, 요즘 읽는 것이나 과외해주는 시인에 관한 잡담을 나눈다. 산책을 하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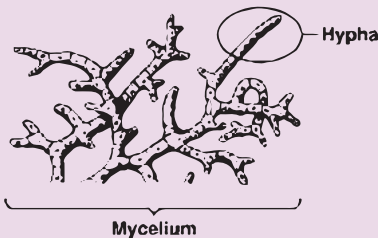


to her. Four years later, that woman reentered Margaret's life[.]<sup>4</sup>

4 I search for someone or something to make my ordinary life extraordinary or to anchor me in the everyday.<sup>5</sup> Same goes for my friends, which is why one of them writes poetry. When I ask this friend what she's feeling these days, what she hopes or prospects to get through the day, she says, "I don't know about hopes and feelings... but I do imagine myself living with someone who's just the right fit. I imagine finding that person or that person finding me. That's the future that keeps me going."

This friend and I like to discuss copyright issues, writing, what we've been reading, and the poets she's been tutoring. We go on walks and discuss poems about walking. Sometimes we'll talk about a poem without realizing we're thinking of two different poems. This friend is someone who will find something to like in something she hears in passing for no specific reason.

산책이 등장하는 시를 알려주기도 한다. 그 순간 떠올리는 것은 서로 다른 시인데, 같은 것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며 한참 떠든다. 이 사람은 가끔 누군가가 지나가듯이 한 말에 대해서 그 말이 그냥 좋다고 말한다. 뜻과 상관없이 언어를 언어로 즐기는 능력이 이 아이에게 있다고 여긴다. 이 아이는 자신의 재주를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문학상 심사위원이 되기 전까지 아마 그럴 것이다. 그러니 문학상 심사위원이 그를 인정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는 얼마 전 일하는 곳에서 회식에 가게 됐는데 생각만 해도 지루할 것 같라며 조금만 자리를 지키다 올 거라고 했다. 사람이 많은데 원숭이두창 걸리면 어떡하냐고 걱정하는 그에게 “세상 망하기 전에 빨리 와.”라고 말해주었다.

5 “지루해서 주리를 튼다는 말이 있다.”<sup>6</sup>

『권태』의 첫 문장은 지루함에 관해 강력하게 말하는 것으로

I think of her as someone who has the capacity to delight in language as language, regardless of meaning. She doesn't recognize her own talent. This is unlikely to change unless I wind up on a judging panel of a literary award. I'd really love it if she does receive that recognition from an existing prize jury one day.

She had to go to an after-work thing recently and said she'd make her escape as soon as possible, she dreaded how tedious it would be. What if she caught monkeypox being around all those people. I told her to hurry back before the world ends.

5 *There's an expression: to twist someone's limbs out of boredom.*<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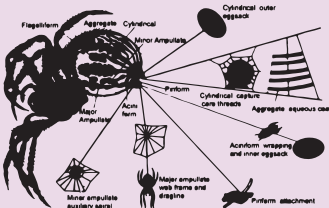
The anthology *Ennui* opens with this impactful sentence on boredom that effectively dispels my boredom. 'Ennui' is an emotion that springs from having too high of an expectation

지루함을 가시게 해주었다. 권태는 삶에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생기는 감정이다.

나는 밤늦게 어딘가를 걷고 싶거나 퇴근 시간에 차가 막힐 것 같으면 가까운 쇼핑몰을 산책한다. 쇼핑몰에서 나는 도저히 지나칠 수 없는, 나를 닮은 듯한 한 벌의 옷을 만나게 된다. 이곳에서 소비하다 황폐해지고 싶다고 생각했다.

동명의 브랜드로 이름난 디자이너 마가렛 호웰. 그의 어머니는 드레스숍에서 일했다. 돈이 많지 않았지만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머니는 호웰과 자매를 고급 백화점에 데려가 가디건을 사거나, 디킨스 앤 존스에 가서 드레스를 만들 면을 고르곤 했다.<sup>7</sup>

김남순 역시 딸을 랄프로렌에 데려가 흰색 린넨 셔츠를 사주었다.



그만 가자고 지루해하는 딸에게 점심을 약속하며 쇼핑을 계속했다. 그의 눈은 쇼핑몰에서 빛났고, 안목과 실루엣에는 점원의 칭찬이 따라다녔다.

한국의 마가렛 호웰은 열심히

of life.

When I feel like going for a night stroll or want to avoid the evening traffic, I go to a nearby shopping mall to walk. There I will come across that one item of clothing I simply cannot walk past because for it seems to resemble me. I'll think about how I'd love to consume until I destroy mysel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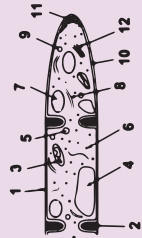
Margaret Howell is a fashion designer famous for her eponymous clothing brand. She grew up working at her mother's dress shop. They weren't well-off but at Christmas, her mother would take Howell and her sisters to pick out cardigans or cotton dress fabric at a fancy department store like Dickins & Jones.<sup>7</sup>

Kim Namsoon, who one could describe as Korea's Margaret Howell, would take her daughter to a Ralph Lauren shop and buy her white linen shirts. Her daughter would get bored and would want to go home, but Kim would go on browsing, promising they'd have a good lunch afterward.

옷을 입었다. 필요하면 철학도 반복했다. 돈이 조금 생기면 백화점에 다녀온 뒤 역시 비싼 것 하나 사서 오래 입는 게 좋지 쓸데없는 데 기웃대봐야 짐만 늘어난다며 싸구려를 최악시켰고, 거리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건진 날엔 돈이 귀하지 옷은 흔하다며 극단을 오갔다.

“그곳 여자들 모두가 드러커 아줌마처럼 상스럽거나 우리 엄마처럼 외고집이었다. 그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처럼 말하는 법이 없었고 넘어온 삶의 고개를 이해하는 것 같지도 않았지만 행동만 보면 세상사를 다 꿰고 있는 듯했다.”<sup>8</sup>

6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나면 세상을 씹기 시작한다.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농담을 해대는 것은 물론이며 쓸모없고 못된 유머를 지껄인다. 대화의 끝에 이런 나를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기를 잊지 않는다. 물론이지. 나에게도 네가 필요하다.



Kim had an eye for fashion and shop assistants would give compliments on her sense of style wherever she went.

Kim vehemently wore her clothes. Her principle conveniently changed when she went shopping. Whenever she came into some money, she'd head to the department store to buy that one expensive item she could wear for a good long time. She would tell herself that hunting down for cheap clothes is a crime that only led to clutter, but when she spotted a keeper in a street stall, she would run to the other extreme and say it was money that was rare and clothes could be found everywhere.

*And I remember [the women] all crude like Mrs. Drucker or fierce like my mother. They never spoke as though they knew who they were, understood the bargain they had struck with life, but they often acted as though they knew.*<sup>8</sup>

6 We begin badmouthing the world when we meet our most

우리는 세상의 어디에도  
정을 붙이지 못하다가 만난다.  
나는 그에게 반하고, 그도 하여간  
나에게 반한다. 우리는 세상의  
없음에 관하여 실컷 떠든다.  
쓰레기야, 지옥이야, 연옥이야.  
그것만이 우리를 출근에서  
놓여나게 해준다.



“반나절 배 타고 남의 나라 절벽까지 가서 한 거라곤 식은 기름  
냄새 풍기는 감자튀김 가장자리가 거뭇해진 양배추 입에 넣고 씹고  
삼키기, 고고하지도 어여쁘지도 않고 음울해지지도 추잡해지지도 못한  
골목에서 뭐 하나 보고 느낄 것 없나 두리번거리기, 하얀 머리 회색 머리  
노인들 서넛이서 말도 몸짓도 없이 보드게임 하는 거 구경하기, 왜 매번  
쓰기는커녕 아쉬워하지도 않을 것들을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해  
싸짚어지고 다니는가 생각하기, 하루 48만 원짜리 호텔에서 돈 아까워  
하느라 욕조에서 못 나오기, 제발 아무도 아무 말도 걸지 마라 하는  
눈으로 돌아다니기, 떠나기로 한 날보다 더 빠른 버스표 알아보기,

valued person. We make politically incorrect jokes, spout idle,  
mean-spirited humor. And at the end of every conversation,  
we always remember to say, Please don't leave me. Of course  
not. I need you too.

We meet after all the listless, fruitless searches for love.  
I fall for her, and she, in any case, falls for me too. We  
rant about the emptiness of the world. It's all bullshit, hell,  
purgatory. This is the only thing that releases us from having  
to go to work the next 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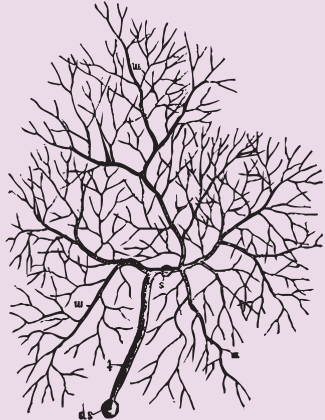
“After half a day on a ship to get to some bluff in some  
other land, all we did was: eat cold fried potatoes that stank of  
grease and cabbage that had darkened around the edges; look  
around alleys that weren't quaint or pretty but stopped short  
of being bleak or dirty to see if there was something to do,  
see, feel; watch a few hoary folks playing board games without  
speaking or moving; wonder why I always overpack my bags  
with things I'd never use, need, or even miss to prepare for

떠나기로 한 날보다 더 빨리 떠나기뿐이었다. 거기는 유명한 작품들의 배경이 되었다는 절경도 있고, 시원하고 투박한 음악 연주가 새어나오는 펍도 있고, 아무도 걸음 않는 이 애매한 계절에 온 걸 보면 자기 만에 대단한 사연 있을 것 같은 뜨내기들도 있는 섬나라 땅끝이었는데, 기타 등등 기타 등등 뭐가 많았는데, 어쩌면 살면서 꼭 다시 한번 오고 싶다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을 텐데.....

나한테는 식당 카운터에  
음소거로 틀어놓은 텔레비전  
자막처럼 눈에 들어오는 게  
없었다. 장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내가 사는 도시에 관  
해 썼다.

“그 도시도 그랬다.  
출장으로 한 번 영화 보러 한 번,  
두 번을 찾았지만 거기서 거기  
할 때 그 거기들 중 하나였다. (...)



every imaginable possibility; stay in the bathtub trying to get my money's worth of the 400 USD a night hotel room; walk about with eyes that say 'Please no one talk to me'; look for bus tickets leaving earlier than our scheduled return date; leave earlier than planned. This place had a magnificent view that appeared as the background of many famous works, had pubs that played refreshing, rustic music, and also had drifters who must each have some sort of a story to have visited the end of an island in the off-season. It also had, and it also had.... it could be the sort of place one would really hope to return to at least once more, and yet... Nothing really caught my attention, as if I was staring at captions on a muted TV in the corner of an eatery. For me, it wasn't a place, it wasn't anything.”

She wrote about my city:

“It was no different. I'd visited twice, once for work and once to see films, and it still remained in the category of places

어쩐지 세 번째 찾기로 했을 땐 그 도시가 조금 복잡해질 것 같다고 생각했다. 어디가 복잡해지려고 하면 그때부터 장소가 된다. 그런 재미를 알게 되어갈 만큼 이 도시가 복잡해졌을 즈음에는 다른 장소들도 생겨났다. 그 도시에서 유일하게 아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 차창 밖으로 무심코 지나쳤던 풍경들, 언급할 만큼 재밌지는 않지만 모으면 좀 재밌어지는 간판 문구들, 서울과 묘하게 어긋나 있는 이곳의 시간 감각이 도드라지는 장소들, ‘서울에도 떡볶이에 토스트 찍어 먹는 데 있어?’, ‘서울 애들도 서울에 있는 대학 가고 싶어해?’

여기가 개네 집 여기가 개네 엄마가 하셨던 미용실이야 하며 보여준 개의 고향, 아직도 감 사과 대추 석류 같은 과실수를 가꾸는 단독주택들, 나 어릴 적에나 지금이나 놀이터에는 아이들과 아줌마들과 할머니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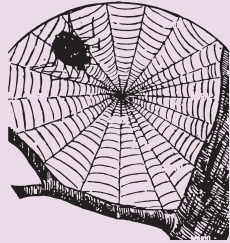
놀러 오는구나, 놀러 갈 데 없으면 놀이터에서 놀면 되는구나 알게 해준 남의 동네, 여기서 나고 자라고 사람 사귀고 배우고 혼자 돌아다니고 깔렁대고 훌쩍였다고 할 때마다 머릿속으로 그려본 그 사람의 출신

that felt like a dime a dozen. [...] Still, on my third visit I somehow thought the city would grow in complexity. When “somewhere” begins to be more complex, that is when the “somewhere” becomes a place. By the time I came to enjoy the city on that level, I began noticing other places. I’m on my way to see the only person I know in that city, scenes passing by out the window, shop signs that become interesting only when seen all together, places where time seems to be at odds with the time in Seoul, Do you have places in Seoul where you dip toast in tteokbokki? and Do kids in Seoul also want to go to uni in Seoul?

She showed me her hometown, saying this was where she used to live, this was where her mum’s hair salon was; streets of houses that still have gardens with persimmon, apple, date, pomegranate trees; the playground where children, ajummas, and grannies gathered, just as they did when I was a child, the playground in someone else’s neighborhood that made

배경, 그 사람과 볼 피고 커피 마시고 산책하고 책 읽고 노닥거리고 세상 구경하려고 찾아 해매는 중인 공동의 로케이션, 메타버스에서도 만나서 재밌게 놀자 말할 때 떠올린 이 도시의 그래픽까지.”

7 린드 : (...)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억누를 수는 없죠. 이들은 필연적으로 스스로의 길을 찾고 다양한 변화를 수행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글쓰기 같죠. (...) 저는 어떤 것이 슬그머니 지나가게 두고 싶지 않습니다.<sup>9</sup>



8 창문에 붙어서 나무를 올려다보았다. 고등학교 3학년은 1층을 썼고, 언제나 더 많은 냄새를 더 빨리 맡았다. 아이들은 쉬는 시간이면 휴지를 빌리러 다녔고, 책상마다 색이 다른 스톱워치가 놓여있었다.

여자고등학교는 현존하는 혁명적 공간이다. 거기서는 매일 밤 쪽지와 싸움, 키스로 달려가는 키스가 일어난다. 어느 날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나타난 네 명의 학생들이 F4로 불리며 인기몰이하기도 하고,

me realize I was welcomed if I had nowhere else to go; the background I'd pictured in my head every time she said this is where I was born, raised, met this and that person, studied this and that, roamed about alone, lazed about, sniveled; the perfect location we're still searching for, where we would sit by the fire, drink coffee, go on walks, read, fool around, travel the world; the graphics of this city I'd picture at the words "Let's meet up in metaverse too, we'll have fun."

7 Maria Lind: You can contain neither things nor people. They will inevitably take their own routes and perform various mutations. It is like writing [...] I do not want to let things slip away."<sup>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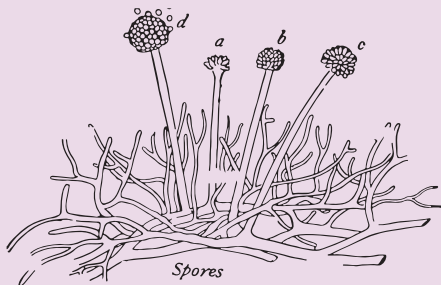
8 I stood against the window looking up into the trees. In our high school, the senior year classrooms were all on the first floor, and we got the wind of everything going on

그것을 지켜보는 다른 인간들은 재네 왜 저러냐, 싫어지기도 한다. 여자 고등학교의 일탈은 미처 언어화되지 못한 덕분에 서로를 무릎에 앉힌다. 학교라는 감옥에서 교복이라는 죄수복을 입기는 했어도... 그곳은 천국이다.

“모든 의식에서 일군의 여자들이 ‘사납게’ 동성애 놀이를 했다.”<sup>10</sup>

9 이 영화는 \_\_에 관한 영화다, 라고 설명하는 일에 어려움을 느낀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대다수의 작품에 좀처럼 이입하기 어렵다는 것이 큰 이유일 테다. 그다지 집중하지 않았지만 아직도 기억하는 장면 하나.

「화이」에서 아저씨  
하나가 여자 꼬시는  
법이라며 설명한다.  
엄지, 검지,  
새끼를 편다.  
강제로라도 몸을  
만지면 반은 네 것이  
된다고 말하며 손을



much faster. During breaks, kids would borrow tissues from each other, and stopwatches of different colors were placed on every des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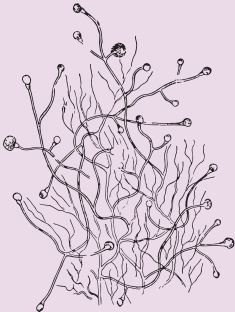
A girls' high school is an actual revolutionary space. Scribbled notes, fights, kisses running to kisses are a nightly occurrence there. Four students can show up one day with short hair and be instantly labeled F4 and cause a sensation, while others wonder, not getting the craze. The deviancies at a girls' high school have no language and allow us to invite each other on our laps. We may be prisoners in school uniforms... but the prison is also heaven.

*At every celebration a group of women engaged in “rough” homosexual play.*<sup>10</sup>

9 I find it difficult to describe or sum up a film. There are various reasons why, but the biggest may be that I find it difficult to identify with most films. There's a scene I remember

미친 듯이 흔든다. 클리토리스는 남성들 사이에서 콩으로 불렸다.

말하자면 콩을 존나 비비라는 건데, 나는 콩을 만져야 한다고 말하는 이에게도 그 말을 듣는 이에도 이입하지 못한다. 콩은 존나 아프다. 콩은 존나 짜증난다. 콩은 존나 커져서 너를 깔아뭉개고 너에게 빔을 쏘서 널 지저버릴 것이다... 그것은 콩과 전혀 다르게 생겼다. 말하자면 집게발과 같은 구조를 가졌다. 이토록 불쾌하며 이입도 안 되는 것을 오래 기억한다는 것이 내가 글을 쓰게 된 이유일 것이다. 누구보다 집게발을 사랑한다는 것 또한.



다자이 오사무, 미시마 유키오, 무라카미 하루키, 이들의 페르소나에 이입하기를 멈추기. 이들의 자의식에 반응해주지 않기. 그러면 세상은 뒤집힐 것이다.

10 클리스토리 또는 헤라클레스로 오해받곤 하는 우리 음핵의 이름은 클리토리스다.

vividly though I hadn't paid much attention at the time. In *Hwayi: Monster Boy* (dir. Jang Junhwan, 2013), a middle-aged man explains how to win women over. Extend the thumb, forefinger, and pinky finger. Once you touch a woman's body even by force, she's half-way to being yours, he says, and jerks his hand vigorously. Men used to call the clitoris a pea.

Basically what he's saying is to rub the pea real good, but I cannot identify with him or the person listening to him. The pea is in fucking pain. The pea's fucking annoyed. The pea's going to fucking blow up to the size of a snowball and crush you, it'll shoot laser beams at you and burn your skin... The clitoris looks nothing like a pea. In fact it resembles a pincer. That I have to carry a scene like that for years amid repulsion and the complete lack of identification are probably what led me to write this. And, of course, my love for the pincer.

Dazai Osamu, Mishima Yukio, Murakami Haruki. To stop identifying with the personae they create, to refuse to respond



클리토리스는 시도 때도 없이 두근거린다. 무대에 서기 전이나 술집 문을 열어젖힐 때 외에도 불시에 존재를 알린다. 새 프로젝트에 착수할 때나 생전 처음 만나는 사람이 내 인생에 입장할 것 같은 순간, 제 관심을 끄는 대상의 등장엔 심드렁한 태도를 버리고 클리토리스는 박동한다. 클리토리스는 무척이나 섬세하고 귀엽고 무엇보다 자신을 돕는 자를 돕는다.

내가 주기도문보다 자주 외우는 말은 이것이다. 클리토리스가 기뻐하는 일을 하세요.

11 오드리 로드의 문장은 지금도 어떤 카페에서 일어나고 있을 대화에 관해 생각하도록 돕는다.

“흑인 여성은 흑인 남성으로부터 이런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다. ‘너한테는 나 같은 남자도 아깝지. 나 같은 남자 없어. 그리고 명심해 뉘. 난 언제나 딴 여자에게 갈 수 있어. 그러니 내 옆에 있고 싶으면

to their ego. This is how to overturn the world.

10 The clitoris sometimes mistakenly trips off our tongue as clistory or heracles.

The clitoris can quicken at the lift of a finger. It makes its presence known randomly, the moment before I walk on stage or open the door of a bar. When I embark on a new project or feel someone, who's unlike anyone, is about to walk into my life, the clitoris casts off its usual indifference and pulses with rekindled interest. The clitoris is exquisitely delicate and cute and above all helps those that help themselves.

Words I repeat more frequently than the Lord's Prayer: *Do what pleases the cl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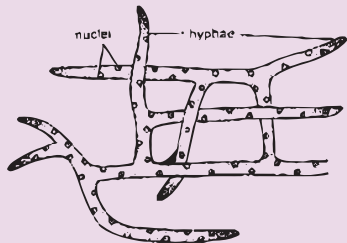
11 Audre Lorde helps me consider the conversations that are likely to still be ongoing in some café or other.

*All too often the message comes loud and clear to Black*

제자리 잘 지켜. 여자들끼리 몰려다니지 말라고. 안 그러면 내 입에서 ‘레즈비언’ 소리 나올 줄 알아. 그리고 그걸로 너랑 나랑은 끝이야.”<sup>11</sup>

흑인 여성들은 우리가 공유하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인식하고 이에따라 행동하기보다는, 이렇게 남자들의 시선에 따라 자신을 평가하고 남성의 주목을 받으려고 서로 경쟁하도록 사회화되어있다.

이쯤에서 21세기 한국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을 기억해보자.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불법 촬영 편파수사를 규탄하는 ‘불편한 용기’ 시위, 4B(비혼,비출산,비섹스,비연애)운동, 탈코르셋 운동이 일어났다. 친구들의 화장법과 말투가 변한 것도 이쯤이었다. 이들은 오래된 남자 친구와 헤어졌고, 레즈클럽이 어디에 있냐고 물었으며, 사실 중학생 때 자주 싸우던 여자애가 있었다고 말해왔다. 우리는 제도로서의 이성애에 관해 떠들었다. 다시 말해, 일군의 여자들은 여자를 사랑하는 여자가 되었다. 주시하고 단속하는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욕망을



women from Black men: “I am the only prize worth having and there are not too many of me, and remember, I can always go elsewhere. So if you want me, you’d better stay in your place which is away from one another, or I will call you ‘lesbian’ and wipe you out.”<sup>11</sup>

Black women are programmed to define themselves within this male attention and to compete with each other for it rather than to recognize and move upon our common interests.

Let’s think back the series of events we’ve witnessed in Korea in the 21st century: the “Inconvenient Courage” protests against the implicit bias in investigations of unlawful filming, videotaping, or photographing of another, the “4B” or “Four No’s” movement (no to marriage, childbirth, sex, dating), and the “corset-free” movement. Around this period was when my friends’ makeup and tone of voice began to change. They broke up with their long-term boyfriends, asked where lesbian clubs were, said there had been this one girl they used

들여다보았고, 이것은 여태 섹스보다 심한 교류를 해왔으면서도 연애일 수 없었던 것들을 이 자리에 불러다 놓았다.

우리는 알고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글을 읽는 것보다 네티, 캐롤, 인기 많던 그 애를 마주치는 것이 때로 빛보다 빠르고 구보다 완전하다는 것을.

“(...) 나는 네티에게 점점 더 자석처럼 이끌렸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부터 그날 복도에서 네티를 마주칠 수 있을까 없을까만 생각했다. 우연히 만나지 못하면 갖은 핑계를 만들어서 그 집 초인종을 눌렀다. (...) 내가 보고 싶은 건 오직 네티, 네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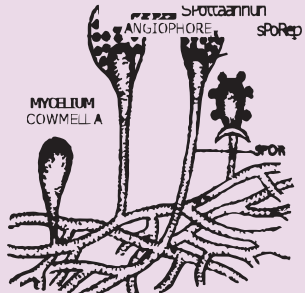


Fig Structure of Mucor

내 손은 언제나 내 몸에서 뺏어나가 그 여자의 얼굴을, 팔을, 옆구리를 만질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나는 그를 열망했다. 그는 내가 도무지 눈을 돌릴 수가 없는 어떤 가능성의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나는 원해..... 나는 원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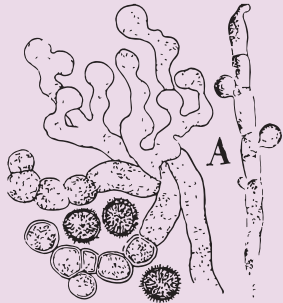
to bicker with in middle school. We talked about the institution of heterosexuality. In other words, a pack of women came to love women. Freed from the observing, controlling gaze, we looked at our own desires and named the intimacies that went deeper than sex that we'd always shared but hadn't considered romantic or sexual.

This we know: Sometimes, encountering a Nettie, a Carol, or that popular girl can be quicker than light and more encompassing than a sphere than it is to read the entire body of written works in the world.

*I saw the change in her, and was magnetized. I would wake up in the morning and wonder if I was going to run into her in the hall that day. If I didn't I'd find an excuse to ring her bell. [...] It was her I wanted to see, only her. And I wanted to touch her. My hand was always threatening to shoot away from my body out toward her face, her arm, her side. I yearned toward her. She radiated a kind of promise I couldn't stay away from, I wanted... I wanted...*

이들은 만화를 그리거나 글을 쓰고, 작업실을 구하거나 구하지 않으며, 언급하는 것조차 수치스럽게 여겨지던 ‘레즈비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논다. 엄마는 엄마비언이 되고 헤테로는 헤테로비언이 된다.

세상은 거대한 여자고등학교가 된다. 계속해서 입학하며 영원히 그 안에 머무른다. 한국 지리와 윤리와 사상을 계속해서 배울 수도 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학생이 된다. 이건 내가 상상하던 근미래의 픽션이며 오늘날의 논픽션이다.



창작을 즐기는 젊은 레즈비언들은 거트루드 스타인을 닮았다. 거트루드 스타인은 말했다. “유대인들은 세 사람의 탁월한 천재를 배출했다. 예수와 스피노자 그리고 나다.”<sup>13</sup>

12 나는 가끔 현실의 어떤 조건과도 무관하게 완전히 자유로운 기분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 어느 하루 잠깐 그렇게 된다. 그럴 때 내가 하는

*I didn't know what I wanted.*<sup>12</sup>

These women draw cartoons, write, search or doesn't search for a studio, play with the word lesbian at a time when even saying the word was considered shameful. We say motherbian, we say heterobian. The world has become one giant girls' high school. Everyday new students enroll to stay forever within its walls. They could continue learning there, about Korean geography, ethics, and ideas. I am the happiest student in the world. This is both the fiction of the near future I'd always dreamt and the nonfiction of today.

Young creative lesbians resemble Gertrude Stein. Gertrude Stein said *The Jews have produced only three originaive geniuses: Christ, Spinoza, and myself.*<sup>13</sup>

12 Sometimes I am seized by a feeling of complete freedom irrespective of my practical reality. Once in a while, for a brief time. In those moments, my thoughts echo Vivian Gornick's

생각이란 비비언 고닉의 문장과 같다. “이 순간,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다.”<sup>14</sup>

마로니에 공원을 바라보고 서서 생각한다. 여름엔 누구와도 어깨동무할 수 있다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세 가지가 있다. 텍스트, 에로스, 그리고 나다.

- 1 <퍼스트 킬>, 에피소드1 “first kiss”, 감독 빅토리아 슈왑, 2022년 6월 10일자, 넷플릭스
- 2 로이스 W. 배너, 『마거릿 미드와 루스 베네딕트』, 정병선 옮김 (서울: 현암사, 2016), 166.
- 3 같은 책, 172.
- 4 같은 책, 159.
- 5 서한나, 『사랑의은어』 (파주: 글항아리, 2021), 166.
- 6 몸문화연구소, 『권태』 (파주: 자음과모음, 2003), 9.
- 7 Tim Adams, “Better with age: the enduring fashion philosophy of Margaret Howell,” *The Guardian* (June 14,

words: at this moment, I love everybody.<sup>14</sup>

I look across Marronnier Park. In summer I'd wrap my arm around anyone's shoulder. There are three things I love most in the world: text, eros, and myself.

- 1 “First Kiss.” *First Kill*, created by Victoria Schwab, season 1, episode 1, WaterWalk Entertainment, Belletrist Productions, *Netflix*.
- 2 Lois W. Banner, *Intertwined Lives: Margaret Mead, Ruth Benedict, and Their Circle* (New York: Alfred A. Knopf, 2003) 100. trans. Byeongseon Jeong, *Margaret Mead and Ruth Bendict* (Seoul: Hyeonamsa, 2016), 166
- 3 *Ibid.*, 172.
- 4 *Ibid.*, 159.
- 5 Hannah Seo, *Sarangui Euneo* [The Jargon of Love], (Paju: Geulhangari, 2021), 166.

- 2020), accessed June 30, 2022, <https://www.theguardian.com/fashion/2020/jun/14/margaret-howell-50-years-design-katharine-hepburn> (accessed Jun 30, 2022).
- 8 비비언 고닉, 『사나운 애착』, 노지양 옮김 (파주: 글항아리, 2022), 6-7.
  - 9 옌스 호프먼, 마리아 린드, 「전시로 보일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변현주 옮김, 『호랑이의 도약』, 2011 <http://tigersprung.org/?p=4458>.
  - 10 로이스 W. 배너, 『마거릿 미드와 루스 베네딕트』, 538.
  - 11 오드리 로드, 『시스터 아웃사이더』, 주해연, 박미선 옮김 (서울: 후마니타스, 2018)
  - 12 비비언 고닉, 『사나운 애착』, 노지양 옮김 (파주: 글항아리, 2021), 57-58.
  - 13 타니아 솔리, 『글쓰는 여자의 공간』, 남기철 옮김 (파주: 이불, 2016), 58.
  - 14 비비언 고닉, 『사나운 애착』, 노지양 옮김 (파주: 글항아리, 2021), 160.
- 6 Konkuk University Institute of Body and Culture ed., *Gwontae* [Ennui: An Anatomy of Boredom], (Paju: Jaeumgwa moeum, 2003), 9.
  - 7 Tim Adams, “Better with age: the enduring fashion philosophy of Margaret Howell,” *The Guardian* (June 14, 2020), <https://www.theguardian.com/fashion/2020/jun/14/margaret-howell-50-years-design-katharine-hepburn> (accessed Jun 30, 2022).
  - 8 Vivian Gornick, *Fierce Attachments*, (London: Daunt Books, 2015), 6. trans. Jiyang Noh, *Sanaun Aechak* [Fierce Attachments], (Paju: Geulhangari, 2021), 6-7.
  - 9 Jens Hoffman, Maria Lind, “To Show or Not to Show” (*Mousse* vol. 31, 2011) trans. Byon Hyunju, *Tigersprung*. [tigersprung.org/?p=4458](http://tigersprung.org/?p=4458).
  - 10 Banner, 334.
  - 11 Audre Lorde, *Sister Outsider* (New York: Crossing Press, 2007), 48. trans. Haeyeon Ju, Misun Park, *Sister Outsider*

### 서한나

『사랑의 은어』(2021)와 『피리 부는 여자들』(2020)을 썼다. 글에 대한 평가 중 반가웠던 것으로 “술 한잔하자고 하면 애니타임 슈어일 정도로 장소를 마법화시켜...”라는 말이 있다. 여자가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 로맨스가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Seoul: Humanitas, 2018)

12 Gornick, 38.

13 Tania Schlie, *Wo Frauen ihre Bücher schreiben* (München: Thiele Verlag, 2014), trans. Gicheol Nam, Geulsseneun yeojai gonggan [The Place of a woman who writes], (Paju: Yibom, 2016) 58.

14 Gornick, 101.

### Hannah Seo

Hannah Seo has authored *The Jargon of Love* (2021) and *The Female Pied Pipers* (2020). One of the favorite comments she received from a reader is "Her writing makes the place so magical that if she invites me for a drink, I would say, Sure, anytime." She believes romance begins when a woman loves herself.

## 사전워크숍 「함께-세계만들기 Worlding-with」

이 글과 문장은 2022 아르코 융복합 예술 페스티벌 «땅속 그물 이야기»의 사전 워크숍인 「함께-세계만들기 Worlding-with」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네 명의 참여자 보선, 서한나, 이길보라, 하미나는 3회의 워크숍에서 우정을 전하는 전략, 언어를 다른 감각으로 전환하는 방법, 이야기를 교환하는 다양한 방식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워크숍 이후 4인의 필자들은 함께 나눈 대화와 각자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글을 작성하였으며, 글의 전문은 티저 웹사이트와 아카이브라운지에서, 문구는 온라인 전시관 <균사체의 정원>의 세계 속에 등장합니다.

## Pre-exhibition Workshop *Worlding-with*

The written works and phrases were produced as part of a pre-exhibition workshop titled *Worlding-with* for the 2022 ARKO Art & Tech Festival. Bosun, Hannah Seo, Bora Lee-Kil, and Mina Ha, the four participants, discussed the following over three meetings: strategies for sharing friendship, methods of transforming language into other senses, and various ways of exchanging stories. After the workshops, they created written works based on their conversations and their own interests. The entire text can be found on the teaser website and ARKO Archive Lounge, and selected phrases appear in the world of the online exhibition *Mycelium Garden*.

Translated by Emily Yae Won

